



군공항·전남권 의대 ‘골든타임’...정치권, 시·도와 머리 맞대라

21대 광주·전남의원들 각자 목소리 내며 갈등만 조장
‘지역구이기주의’ 탈피 큰 틀의 지역 발전 담론 절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광역 현안 정치력 첫 ‘시험대’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8개 선거구 싹쓸이로 광주·전남지역 1당 독점 체제가 재현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전남권 의대 설립 문제에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제21대 국회 4년간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지역구이기주의’에 매몰돼 제각각 목소리를 내며 갈등만 조장했던 상황을 또 다시 되풀이 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다.

특히 올해가 군공항 이전·의대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큰 틀의 지역 발전 담론을 바탕으로 초광역·광역을 아우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결국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갈등 조정력과 정치력 첫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11일 지역 정가와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에 따라 ‘일단 멈춤’ 상태에 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 말 소음 피해 대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군공항 관련 논의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경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해 말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에 합의하며 큰 흐름을 잡았다.

하지만 이전 후보 지역인 무안군의 반대 여론이 여전히 향후 전개 방향을 살볼 리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만큼 광주·전남 정치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

문제는 제21대 국회 4년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광주·전남 공동 발전을 담보할 어떤 형태의 어젠다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광주에서는 군공항 소재지인 광산지역과 소음 피해 지역인 서구 국회의원들만 군공항 조속 이전 주장만 쫓고, 전남에서는 무안공항을 지역구 내에 두고 있는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군공항 이전은 안된다”며 반대 입장만 고수했다.

이에 따라 제22대 총선 광주·전남 당선자들이 무안국제공항이 무안이나 전남만의 공항이 아니라, ‘광주·전남의 공동 공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양 시·도가 동일한 방향타를 잡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공동 담론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당당한 정치’ 다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지역구 8명의 당선자가 11일 오전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민주주의 문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최근 지역간 갈등 양상이 거세지고 있는 전남권 의대 설립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전남권 의대 신설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동부권·서부권 후보들은 각각 자기 지역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냈을 뿐, ‘전남지역의 의대’라는 애초의 출발점을 간과한 행태만 반복했다.

전남도도가 최근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대 설립 방안을 폐기하고 공모를 통해 단일 의과대학을 선정기로 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동부권·서부권 간 갈등 양상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김영록 지사가 15일 목포대 총장·목포시장·목포시의회의장, 18일엔 순천대 총장·순천시시장·순천시의회의장과 전남권 의대 공모 관련 탈레이 면담을 갖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어서 향후 회동 범위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 4년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사이에서 소모적 갈등을 조정할 큰 흐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재정기자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 합동 축하 인사회

광주매일신문과 광주MBC·KBC·광주CBS·뉴스광주전남·남도일보·전남매일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제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이하 당선인) 합동 축하 인사회가 열립니다. 당선인과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이 함께 참석하는 이번 축하 인사회는 광주·전남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미를 두고 마련했습니다. 또한 당선인 개인이나 기관이 따로 만나는 번거로움이나 소모성 만남을 최소화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석 인사 :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 광주·전남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각급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기초의회 의장단, 각급 기관장, 광주상의 2대 의원
- 주 제 : 광주·전남 상생 발전을 위하여
- 일 시 : 2024년 4월 23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
- 주 최 : 광주매일신문·광주MBC·KBC·광주CBS·뉴스1·광주전남·남도일보·전남매일
- 주 관 : 광주상공회의소
- 문 의 : 광주상공회의소 062-350-5861·광주매일신문 062-650-2005

광주매일신문

野 192석 ‘압승’...국힘 108석 ‘참패’

제22대 총선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18곳을 싹쓸이 하는 등 범야권에서 총 192석을 확보해 국민의힘을 꺾고 압승했다. > 관련기사 3·4·5·6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중 161곳에서 당선됐다. 이어 국민의힘 90석,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진보당이 각각 1석씩을 확보했다.

총 46석이 걸린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각각 확보했다. 민주당(민주당 포함),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이다. 국민의힘은 비례를 합해 108석을 얻으며 참패했으나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확보했다. /박성강기자

尹대통령 “국민 뜻 받들어 국정 쇄신”

야당과 소통 방침...이재명과 ‘영수회담’ 가능성
총선 참패 ‘후폭풍’ 총리·대통령실 참모진 사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참패를 안겨 준 민의를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실장은 기자들이 “대통령 뜻이 야당과 협조, 소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느냐”고 묻자 “예,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5월10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고수해온 국정 운영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이라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압도적 다수당이 된 만큼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구하게 될 것이라 전망도 있다.

이럴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선 경쟁자이자, 과반 의석이 넘는 제야당 대표인 이 대표와 별도 ‘영수회담’을 단 한 차례도 갖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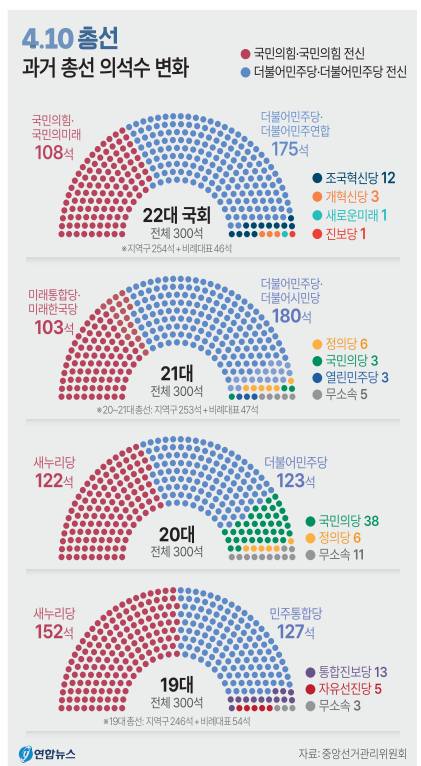
‘영수회담’이 실현될 경우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 등이

이제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용산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도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 대대적인 인적 개편도 예고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일부 부처 장관까지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도 사의를 밝혔다.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돈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은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다.

대통령실에는 민심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조직 개편도 수반될 것이라는 전



망도 나온다. 다만, 국가안보실은 자진 퇴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진수기자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전광판 사진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남양정보기술(주) ☎ 광고문의 062) 231-1355